

(3) ㉞진안할망㉠ (성산면 수산리)

진안할망은 성담쏘굽에
 할망을 놓안 성을 쌓난
 진안할망이엿 힙네다.
 옛날 고려적에
 여배에서 여놈들이
 주주 친입을 하연
 “성담을 돌르라” 훈디,
 성담이 자꾸 몰아지연,
 호로운 꿈에 산신이 나타나고
 열시슬된 처녀를
 농왕 담을 쌓민
 좋기엔” 하난
 열시슬 난 지집애기를
 놓고, 성을 돌렸습네다.
 그후로 성담은
 잘 되엿습네다.
 단궐들이
 하는 이력이 부족하나
 집안이 펜치 못하민
 이 할망안티 왕 빌민
 펜안힙네다.

제일, 11월 14일 동지제
 주손에 생기 맞은 날

<성산면 수산리 여무 49세 조옥순님>

민속원,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1991, pp.441-442.

(3) ㉞진안할망㉡ (성산면 수산리)

이 당은 옛적
 이 묵을에 성을 쌓고

진을 칠 때
성담이 자꾸 몰아지여,
흑은
어떤 대서가 넘어가다가
“열시슬 된 처녀를 놓아,
그 웃티 성담을 쌓민
좋겠다”, 하여,
그영 하였더니
성담이 완고하여진
할망이우다.
마을에서 이 당이 강
빌민,
편안케 하여주는
진안할망이우다.

제일, 족손에 생기 맞은날,
동지날.

<성산면 수산리 신자 33세 강유행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442.